1. 지원동기

초등학교 시절, 중국행을 택하신 아버지로 인해 저는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수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언어와 문화라는 장벽을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 당시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교직을 이수하며 교육봉사(1)이라는 사회봉사 강의를 수강하던 중, 저는 학생들 사이에서 다툼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해결 절차는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변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기조차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의 재량판단이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상 훈육을 담당하는 교사조차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발견한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가 처음으로 교육 분야에서 법조인의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학교폭력의 이론과 실제, 법과 사회질서와 같은 수업들을 찾아 들으며 형법과 소년법을 접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건전한 교육환경 형성을 위해 이바지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대림 소재의 구로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며 저는 저의 해외경험과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급격히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제게 목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인문학적 소양, 외국어 능력,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 향후 공부할 법학에 접목하여 건전한 교육환경 형성을 위해 이바지하는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목표로 귀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학교생활

저의 학부생활은 사학과 교육학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취득학점인 137학점 중 필수교양을 제외한 80학점을 모두 사학과 교육학 과목으로 이수한 만큼 사학과 교육학은 제가 인문학적 소양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저의 전공인 사학은 역사 속 거대한 서사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저의 전공은 4년간의 공부를 통해 다양한 가치관을 탐구하여 수용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학은 학교현장의 전반을 이해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수많은 수업실연을 통해 익힐 수 있게 해줬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이수자 중에서는 학업성취와 발표능력을 인정받아 교육부가 주관하는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연세대학교 학부대표 역사과목 수업실연 연수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